

길림시 서화작품전시, 조선족 여성들 작품도 한몫

농촌마을 취미마라톤

뛰는 재미 즐기고 먹는 재미도 좋아



일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 주년을 경축하여 조국의 빛나는 로정을 회고하고 길림시의 발전 성과를 과시하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자는 주제로 길림시 서화작품전시 행사가 길림시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풍만구당위 선전부, 길림시문화

자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 길림시 박물관, 길림시교육국 차세대관심사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서화작품전시회 총 715 점의 작품을 전

시하였는데 그중에는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전임 회장 조정화와 여성협회 회원 가족 8명의 서화작품이 포함되었다.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리옥란 회장은 "본 협회 회원들의 서화작품은 여러차례 성, 시급 서화전과 시합에 참가하여 영예를 떨쳤는데 이들의 성적은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다년간 길림시조선족중예미술관 박건국 부관장과 본 협회 공익강단의 강사인 길림시 유명한 조선족 서예가 신현산 선생의 정성어린 지도와 인내심 있는 가르침 속에 조금씩 진보하여 이른 것"이라며 이번에 입선된 작품중 회원 김옥화의 가족 박봉일의 열정이 넘치는 필묵 "황금 가을의 가장 진실한 웃음, 당신의 깊은 축복과 함께 조국이 번영창성하기를 바랍니다"는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전체 회원들의 공동의 염원과 축복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전했다.

/ 최명란, 로경림, 차영국기자



길림시 세 조선족 로인 서화전 펼쳐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평균 나이 85 세

다채로운 행사로 국경절 맞이



89 세 조영길로의 작품

남재선선생(82세)의 멋진 서예작품 10 여점, 중국석유길림화학공업 설계원 환경보호연구소 고급기사로 퇴직한 리광식선생(85세)의 시작품이 조선족식품상점 3층 벽을 꾸미었다. 남재선과 조영길은 길림시조선족중예미술관에서 주최한 서화전에 참가하여 여러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리광식의 문학작품은 《연변문학》잡지에 수편 실렸고 《로년세계》잡지사의 '천우컵' 문학공부에서 수필부문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80대에 들어섰으나 아직 신체가 건강한 삼로용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흥취애호가 있어야 하고 항상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으며 노력으로 생활의 품위를 높이고 취미로 생활을 꽃피워야 한다며 특히 로년에는 취미생활이 치매 예방에도 일조하는 등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서화전을 개최하기까지 심혈을 기울여준 길림시의 리진환선생과 전람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조선족식품상점의 리경교 경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새 중국 창건 75돐에 즈음하여 9월 14일에 막을 올린 이번 길림시 조선족 삼로용 서화전에 지난 9월 29일 기준으로 길림시 조선족사회 각 계인사 400여명이 관람을 다녀간 가운데 서화전은 11월 14일까지 관람객들을 반긴다고 한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오곡백과 무르익는 황금의 가을,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는 가을소풍과 탁구경기, 사회구역 문예공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을 경축했다.

협회는 80세 이상 회원 39명을 인솔하여 가을소풍을 조직하였는데 이 활동은 고령회원들로 하여금 대자연 속에서 심신건강을 도모하고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협회 생활의 락을 느끼도록 하였다.

김태식 부회장이 책임지고 조직한 탁구경기에서 본 협회 많은 회원들이 적극 참가하여 경기장에서 맘을 즐리며 탁구 기술을 교류하였다. 신체단련 뿐만 아니라 경쟁의식까지 고취시켜 회원들의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활기찬 정신면모를 보여주었다

탁구경기는 남자팀 1등에 리효철, 2등에 김병룡, 3등에 김응구가, 여자팀은 1등에 박애화, 2등에 문명숙, 3등에 장영옥이 따냈다.

장영옥 부회장이 책임진 사회구역 문예공연 활동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구역 공연은 회원들의 장개를 발휘하는 장이 되었으며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도 풍부히 하였다. 멋진 공연을 통해 조선민족의 전통문화를 전시하였으며 사회구역의 민족단결을 도모하는 등 유쾌하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김병희 회장을 위수로 한 협회 지도부는 상의 끝에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본 협회 활동실 보수와 교체 작업을 전개하기로 했는데 7만여원의 협회 자금을 투자하여 활동실 건물 시설을 개선하는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여 회원들이 겨울철에도 따뜻한 활동실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류대진, 차영국기자



400 여명 조선족 로인, 국경절 경축 대형 광장무용



9월 28일, 길림시조선족실업소 학교 운동장에서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가 주최한 '중화민족 한집안, 중국꿈 공동구축 및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 경축 문예공연'이 펼쳐졌다.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황정에 부회장은 "국경절을 앞두고 민족단결진보의 달 9월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구축을 주제로 협회 회원들의 재능과 적극적으로 협회적인 정신을 반영한 대형 공연 행사를 조직하게 되었다."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발양하며 협회 생활을 더욱 활력있고 다채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18개 분회의 400여명 회원들이 참여한 대형 광장무용 협회민족악단에서 연주한 기악합주 등 종목들이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풍만구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관광업의 융합발전 도모

푸른 하늘과 흰구름 아래 산뜻한 색깔의 민가들이 눈에 안겨온다. 시골 마을과 들판 사이 도로도 깨끗하고 잘 뚫려있다. 레저광장에는 음악 소리가 은은하다.

길림시 풍만구의 여러 마을들에 들어서면 마치 조용하고 편안한 전원 산수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올해 들어 풍만구는 농촌 주거환경 정비 향상을 목표로 경치가 아름답고 정원이 깨끗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촌 생활쓰레기에 대한 정리 강도를 높이고 전문적인 정리 운송 대오와 설비를 갖추었으며 동시에 쓰레기 분류 제도를 적극 보급하여 주민들이 분류 투입의 좋은 습관을 양성하도록 인도하였다.

대오를 적극 조직하여 잡초를 정리하고 수로를 튀워놓았다.

지금까지 루계로 농촌 생활쓰레기 5,539톤, 건축쓰레기 63톤, 잡초 430킬로미터를 정리하고 거리에 합부로 붙인 작은 광고 78곳을 정리하였으며 가급본더미 30여곳을 정리하고 35곳의 허물어진 담장과 105곳의 도로 점거물 및 잡동사니를 처리했다.

이와 동시에 기반시설 건설을 다



경치 좋고 깨끗한 풍만구 마을

그쳐 길천선(吉天线), 길화선(吉桦线), 길풍서선(吉丰西线) 등 여러 현과 향으로 통하는 도로 관통 사업을 완수하였는데 총 길이가 37.6킬로미터에 달한다.

구멍이 1만 3,200평방미터를 메우고 도로변 도랑을 대거 정리했다. 이 밖에 도로연선에 7,000평방미터의 꽃과 2,181그루의 교목을 심어 농촌 환경을 미화하고 농촌의 전반 형상을 제고시켰다.

농촌 환경이 개선되고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풍만지역의 농촌에 와서 농가 요리 맛보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며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농촌이 아름다워지고 주민들의 수입이 높아졌는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농업과 관광업의 융합발전 리념이 가져다준 혜택이다. / 길림일보

길림시 평산거리 관통 공사, 전 구간 준공 개통

최근, 길림시 선영구 평산거리 관통 공사 전 구간이 준공되어 개통되었다.

평산거리(위광로-월산로) 도로 공사는 총 길이가 2.85킬로미터이고 너비가 20~24미터이며 덕승로-위광로, 위광로-월수로, 월수로-월산로 등 3개 구간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기 길림시도시건설그룹유한회사와 길림시도시건설관리유한회사가 수주하였다.

평산거리 도로 개통으로 월산로,



덕승로와 교통도로망을 구성하면서 선영구 북산지역의 교통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전망이다. / 강성일보